복수심과 앙심은 악신을 섬김이다

(시편 94:1~23)

1.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4.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수심과 앙심은 악신을 섬김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수심과 앙심은 악신을 섬김이다'

우리는 올해도 십자가 생활화 하나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돈이나 건강 그 외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의 경계입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까지 길을 내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마음이 이 세상 끝에 있는 십자가의 문을 열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안쪽에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깥쪽에는 몸이 남아있지만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십자가 바깥쪽에 있는 몸은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장갑삼아 끼시고 움직이십니다. 내 판단과 생각과 몸을 하나님의 뜻의 장갑으로 끼셔서 삶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 크기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하나님을

흡입합니다. 십자가 안쪽에는 마음 채움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과 성령님 뿐이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십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몸이 만나는 모든 것들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흡입력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바깥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은 곧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신이란 하나님 이외에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신의 대표로서 재물을 드시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이유는 재물을 가질 때에 기쁘고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건강 장수 출세 관직 승진 자녀형통 명품 등을 섬기며 살아가고 심지어 목사님들은 수적인 부흥이나 명성을 다른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 바깥쪽에 머물고 있는 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신들 중에서 특히 악신이 있음을 말합니다.
악신이 있다고 해서 그 외의 다른 신들이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자체에 있어서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치들을 선망하고 기대하고 열망하고 소원할 때에 그 가치들은 다른 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신들 중에서 특별히 악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은 곧 내가 가질 때에 기쁘고 만족하리라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반대로 악신은 반드시 없어져야 기쁘고 만족하리라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이 악신을 섬기는 마음은 복수심과 앙심과 질투심과 증오심으로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기대하고 집착함으로서 열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장희빈이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화살을 쏘면서 죽기를 바랐던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에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악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현왕후는 악신이 아니지만 장희빈이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신의 대표격으로 말씀하셨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재물은 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신으로 대우하고 있을 뿐입니다. 철학자 종교학자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이 신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신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이 기쁨의 문제는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성령님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에 참여할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본 시의 저자와 저작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의 신앙공동체가 자체에 있는 악한 권력자들의 압제와 강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인은 극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압제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공동체의 보존과 유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시인의 마음에 악한 자들을 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품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기원하고 있는데 1절부터 강렬한 감정이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습니다. 또한 2~3절을 보아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라고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라고 미움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6절에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라고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복수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한 복수를 호소합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라고 마음의 앙심과 복수심을 풀어주실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견디지 못해서 속이 터져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위기를 다른 시와 비교해보면 시인의 상태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의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도 하였습니다. 7~8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말하며 오늘 시인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의 스데반 집사님은 죄 없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19~20절의 요셉의 경우에도 형들은 요셉이 앙갚음 할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앙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갚음일까요? 원수에 대한 복수심과 앙심을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타나지만 그것은 복수심이나 앙심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심이나 앙심의 얽매임에서 탈출하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와 대적들의 진짜 성공은 세상 가치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이 사기를 쳐서 10억 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해외로 도망쳤는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분함과 원통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연히 ‘길에서 강도라도 만나 콱 죽어버려라’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진정한 원수인 마귀가 이룬 성공은 나에게서 10억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동창을 향해 복수심과 앙심을 품게 된 것이 마귀의 성공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다른 이에게 앙심을 품는 것이 오히려 원수의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이 앙심과 복수심도 결국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믿음인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게 10억의 피해를 입힌 원수가 죽어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큰 반역입니다.
복수심은 대부분 상실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볼 때에 십자가 안쪽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원수나 대적자일지라도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빼앗음을 통해서 상실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쪽에서는 내 마음이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쪽에 머무는 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게서 빼앗아갈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조차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 것은 하늘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안쪽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십자가 바깥으로 내보낸다면 세상에 대한 흡입력이 작동하여서 육체가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사방천지가 원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은 흔합니다. 명절 때만 되면 칼부림이 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고 둔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앙심을 품는 것은 결국 부당하게 내 것을 빼앗겼

다는 것이고 훼손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실감과 훼손감은 십자가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십자가 안쪽에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대상은 육체로 만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향하자 죽어가는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십자가 안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원수나 대적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대적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채우실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으로만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고통은 마치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목구멍까지 차있는 상태였지만 원수들에 대해 복수심을 불태우기는커녕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복수심에 먹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복수심에 불타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22절에 가서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복수님과 앙심에 겨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복수해 주실 것을 간구하다가 가까스로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인지상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일한 신이 되셔야 됩니다.
신은 곧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고, 십자가 안쪽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감을 느껴야 할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는 것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까워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복수심과 앙심과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가장 우선적인 상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성전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는 것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을 품고 분노하였던 복수심과 앙심을 죽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성전 의미의 완성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 품었던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쪽에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평강을 얻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바깥쪽에 남아있는 몸을 장갑삼아 활동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횡횡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압제를 당하는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도와야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유혹은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핍박 받는 자를 위해 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나를 상실한다면 분노의 표현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 돌을 던진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십자가 안쪽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록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수심과 앙심은 곧 악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원수와 대적자들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계속해서 원수와 대적자들의 힘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삶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악신에 대한 섬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햇살 가득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안쪽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복수심과 앙심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선함으로 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